

대체에너지 사용 대폭 확대한다!

정부, 2011년 사용비중 5%까지 높여 ... 신·재생 에너지 적극 개발

풍력, 수소전지, 지열 등 대체에너지 사용비중이 2004년 2.1%에서 2006년 3%, 2011년 5%까지 대폭 높아진다.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속되는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대처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 예산이 2004년 1757억원에서 2005년에는 2387억원으로 35.9% 늘어나며 이후에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예산도 2005년 5780억원으로 6.4%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당장의 경제성으로만 따지면 대체에너지 가격이 석유 등에 비해 훨씬 비싸지만 중장기적으로 석유가 점차 고갈되고 대체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장기투자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예산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는 폐기물에너지(68.5%)와 수력(27.6%)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바이오(3%), 태양열(0.7%), 풍력(0.1%) 등이다.

유럽 등 선진국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중이 훨씬 높아 덴마크 11.1%, 프랑스 7%, 미국 4.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2005년 비축유 구입예산은 150억원으로 2004년 951억원에 비해 대폭 줄었는데 2003년과 2004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비축유를 사지 않아 예산이 이월됐기 때문이다.

<화학저널 2004/12/08>